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12월18일

대림절 넷째 주일
세계 교회력 「가」해 4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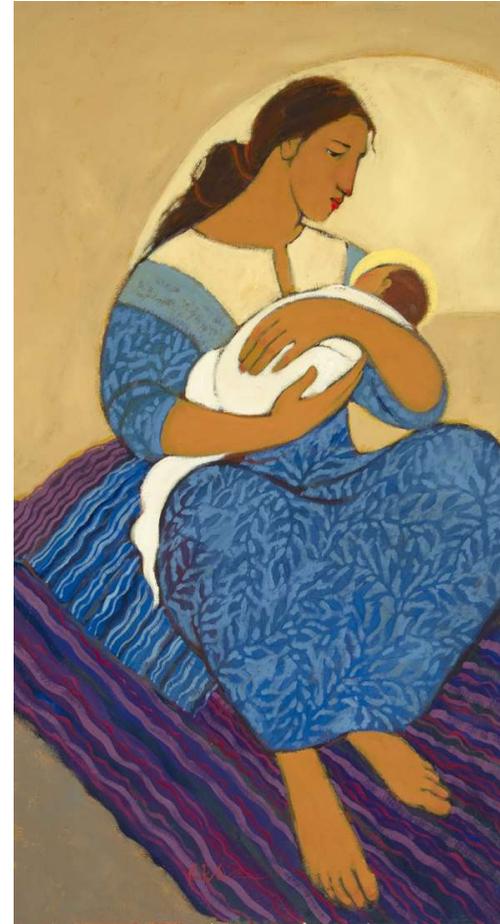
여기에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게 되었다는 말은 본다는 사실 자체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듣게 되었다는 말은 듣는다는 사실 자체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시야에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겨울나무, 달, 돌, 먼지가 들어옵니다. 우리 귀에 무언가가 들립니다. 찬송, 아기 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보고 듣는 사건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보고,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아주 낮설어하고 놀라워할 때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실제로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다고 해서 다 걷는 게 아닙니다.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모두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면 너무 황홀해서 춤을 추고, 웃음을 입에 달고 살 겁니다. 그 외의 다른 것은 없어도 아쉬움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겁니다. 걷는 행위를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일 년이 되어야 걷습니다. 걸음을 배우려면 수없이 실패를 반복합니다. 최고로 발전한 로봇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다 아실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걷는다는 사실에서 절정의 기쁨을 느낀다면 그는 작은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아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번 2022 월드컵 대회가 카타르에서 세계적인 축제의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축구선수들이 축구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생기가 솟아납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달리기 예술이나 인생 철학처럼 보입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걷고 달린다고 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걷게 되었다는 말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걷기 힘든 노인, 또는 뇌수술을 받아서 걷기가 힘든 이들이 지팡이를 짚거나 보조원의 도움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 비로소 걷는 행위의 존재론적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못 걷다가 걷게 된 사람처럼 희열에 벽차서 다른 일들은 사소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에 따라서 구원의 징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기다려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운명에서 드러난 구원의 징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수행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분명히 인정받을 겁니다.

✠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롬1:1)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화가 이름은 캐슬린 피터슨이고, 21세기 작품이다. 미국 유타주 스프링 시에 그의 작품 전시관이 있다. 예수 당시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오늘의 감각으로 그렸다. 산모가 라틴아메리카계 여성으로 보인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에 따르면 모든 아기는 잠재적 메시아다. (반더빌트 대학교 신학대학 도서관 인터넷 사이트에서 퍼옴)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갤러리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
목사: 정용섭 010-8577-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e/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는 자본의 힘이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세상의 삶에 익숙해져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삶을 경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영혼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97장 (정혼한 처녀에게) 1~3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이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총만한 가운데
모든 사람과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곧 '임마누엘'의 은총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전체 삶과 운명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Sanctus)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 1월 1일은 여성플라자 휴관으로 서울샘터교회 예배가 없습니다.
- 2023년 시작하는 대구 예배 공동체 이름은 '다비아 샘터교회'입니다.
다비아 샘터교회 창립예배 : 2023년 1월1일(일) 오전 11시
주소 : 대구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70
서울샘터 운영위에서 참석하고자 하오니 동행하실 교우는 운영위에 알려주십시오(교통비 각자 부담).
- 샘터 주일학교는 2023년 2월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 정목사님 설교집 [설교 단편 2]이 출간 되었습니다.
12월 25일 예배 후에 교우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지난주일(12월11일) 헌금: 460,000원(주일헌금 340,000원 통장헌금 120,000)
통장: 카카오 3333142466417(박수진)

* 12월 예배 준비 안내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12월18일	박재진목사	오미영집사	양혜선집사	김희란,양혜선/아트컬리지5
12월25일	김동호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이기령,김용성/아트컬리지5

지난주일(12월11일) 설교 발췌

제목: 구원의 징표 (마 11:2~11)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근본에서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나 실제로는 못 보고 삽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못 듣고 삽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고, 진리를 볼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자 지식인이었으나 근본에서는 못 듣고 못 본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면서 삽니까?

동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1,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이기에 오히려 자유롭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존 전체와 우리의 인격 전체가, 그리고 남이 알아채지 못하는 영혼 깊은 곳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혼이 궁핍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뢴 모든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며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하 - 늘 높 은 곳 - 에 는 하 나 님 께 영 - 광 영 광
 땅 위 에 는 그 - 의 백 성 들 - 에 게 평 화 - 평 화
 주 하 나 님 - 왕 - 의 왕 전 능 하 신 하 - 나 님 께
 감 사 찬 양 드 리 나 이 다 영 - 광 을 드 립 - 니 다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Sondra Corbett

D7/G G Em Am7 C/D G D7

경 배 하 리 주 하 나 님 - 전 능 하 신 주 경
I wor - ship You, Al - migh - ty God, - there is none like You. I

D7/G G Em C G D

배 하 리 평 화 의 - 왕 - 주 를 사 랑 합 니 다 찬
wor - ship You, O Prince of peace, - that is what I love to do. I

C G Em Am7 D7

양 하 세 - 누 가 주 와 같 으 리 - 경
give You praise, - for You are my right - eous-ness. - I

D7/G G Em Am7 D7 G

배 하 리 주 하 나 님 - 전 능 하 신 주
wor - ship You, Al - migh - ty God, - there is none like You.

출 15:11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주시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이사야 7:10~16 ... 오미영 집사

성서교독 시편 80:1~7, 17~19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이스라엘 목자시여 귀기울여 주옵소서/ 오셀가문 양떼처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존귀영광 우리주님 모습환히 밝히소서/
-에브라임 비롯하여 이스라엘 가문앞에/ 모습보여 주옵소서 능력펼쳐 주옵소서
우리회복 하기까지 우리구원 받기까지/ 주 하나님 밝은얼굴 계속보여 주옵소서
-만군의주 하나님은 이백성을 외면하시/ 오랜기도 드렸어도 노여움만 보이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의빵 먹이시고/ 계속되는 눈물로써 물마시게 하셨다네
-이웃에게 우리모두 시뻘거리 되었으며/ 원수들도 우리들을 비웃고만 있나이다
만군의주 주 하나님 우리세워 주옵소서/ 주 하나님 밝은얼굴 지금보여 주옵소서
-우리주님 오른쪽에 자리하는 주의사람/ 친히군게 세워주신 그사람을 붙드소서
주님이름 부르면서 영광찬송 돌리도록/ 우리들을 살리소서 우리들을 살리소서
-은세상의 주 하나님 우리세워 주옵소서/ 주 하나님 밝은얼굴 지금보여 주옵소서

둘째말씀 로마서 1:1~7 ... 오미영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1:18~25 ... 오미영 집사

*응답찬송 새로운 예배 찬송 492장 (아멘) ... 다 함께

A - men, a - men, a - - - men.
아 - 멘 아 - 멘 아 - - - 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 ... 박재진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97장 (정혼한 처녀에게) 4~6절 ... 다 함께